

추석 성수품 공급 1.6배 늘린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마련
1인당 2만원 한도로 20%까지
제로페이 이용시 20~30% 할인
배추·무·사과·배 등 평시대비 ↑



한국은행이 '국내외 식료품물가 흐름 평가 및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통해 국제 식량가격 급등세가 국내 식료품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기상여건 악화, 러-우크라 전쟁, 흑해 곡물협정 중단, 인도 쌀 수출 중단에 따른 식량안보 우려 등이 주 요인이다. 결국 국내 저소득층 가계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식료품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모습. /뉴시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4개 추석 성수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된다.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농축수산물 구입시 1인당 2만원 한도로 20%까지 할인되고,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앱 이용시 20~30% 할인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추석 성수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공급을 늘리는 농축산물은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소·돼지·닭고기·계란·밤·대추·잣이다.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이들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4만9000톤 확대 공급한다.

특히,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전년보다 7~8% 수준 확대하고, 닭고기는 계열업체

입식자금 지원과 할당관세 추가 적용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한다.

배추·무의 경우 현재는 안정적이거나 기상 악화에 따라 수급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축한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수급 불안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3주 전인 내달 7일부터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29일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정부가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 업체가 추가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추석명절 20대 성수품과 평년 대비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고등어·오징어, 고사리·도라지·전복·마른김 등 제수용품 등이 할인지원 대상이다.

할인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한국 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원 한도로 20~30% 할인

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편의를 위해 내달 11일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9월21일~27일까지는 150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정부 할인행사와 함께,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추진된다.

농·축협은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e-하나로마트) 등에서 제수용품과 과일·한우 선물꾸러미 등 최대 40% 할인 판매(~9.28)하고, 산림조합·임업진흥원은 우체국쇼핑, 네이버쇼핑 등과 연계해 임산물 직거래 장터(9.7~27일, 10~20% 할인), 2023 추석맞이 청정임산물특별기획전(9.11~10.15)을 운영한다. 한우·한돈자조금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 구입류·정육, 돼지 삼겹·목살 등 최대 20~50% 내외 할인판매(9.18~28)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석 명절 먹거리 전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및 가공식품·외식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경기도에는 원하는 배움이 **多** 되는 **경기공유학교**가 있다

- ✓ 학교밖에서도
- ✓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추석명절 자금난 숨통 틔우기 中企·소상공인에 7.2조 푼다

중기부, 中企·소상공인 민생 안정 방안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 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 명절 전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으로 완화를 위해 7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9~10월 총 7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으로 완화를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9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조7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3조6000억원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30만원씩 더 늘렸



세종시에 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청 청사.

다. 이에 따라 지원형은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카드형·모바일은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공공부문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황금년 동행축제가 9월27일까지 열린다. 온라인몰, 백화점, 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만 4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지역축제와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